



“건강한 질주” 정남진 장흥 전국마라톤대회 ‘성황’

제16회 정남진 장흥 전국마라톤대회 5000명 참가 성료

풀코스 남자 1위 안규석·여자 박은숙...안전한 대회 운영

제16회 정남진 장흥 전국마라톤대회가 지난 25일 장흥군 탐진강변 체육공원과 장흥읍 일원에서 열렸다. 장흥군이 주최하고 장흥군육상연맹이 주관한 올해 대회에는 전국 마라톤 동호인과 지역민 5,000여명이 참가했다. 3년만에 개최된 이번 대회는 풀코스와 하프코스, 10km 단축코스, 5km 건강코스까지 4개 구

분으로 구분돼 치러졌다. 대회 결과 풀코스 남자 1위는 안규석(광주, 2시간 46분 15초), 2위 김성민(광주, 2시간 50분 13초), 3위 김영진(전남 목포, 2시간 56분 11초) 선수가 차지했다. 풀코스 여자 1위는 박은숙(광주, 3시간 32분 46초), 2위 안유리(광주, 3시간 33분 44초), 3위 정해숙(경남 창원, 3시간 49분 36초) 선수가 이

름을 올렸다. 하프코스 남자 경기는 김보건(서울, 1시간 15분 49초), 여자 경기는 조은숙(전남 보성, 1시간 43분 42초) 선수가 각각 1위를 기록했다. 10km 남자 1위는 문복식(광주, 35분33초), 여자 1위 추은하(전남 무안, 42분 14초), 5km 남자 1위는 오승환(전북 정읍), 여자 1위 고남순(전남 완도) 선수가 차지했다. 장흥군은 대회 당일 선수들의 안전을 위해 마라톤코스 구간엔 모든 차량을 통제했다. 부산면을 지나 지천터널, 유치면에 이르는 구간에는 자원봉사자가 배치돼 물과 이온음료 등을 공급했다.

구간마다 거리 응원단이 모습을 보이는 등 전체적으로 안전한 대회 운영이 눈길을 끌었다. 행사장에는 마라톤 영웅 이봉주 선수가 참석해 팬 사인회를 여는 등 전국 마라톤 동호인들의 축제의 장이 연출됐다. 김성 장흥군수는 “전국의 마라토너들이 최고의 컨디션을 유지하며 장흥군의 아름다운 호반코스를 질주했다”며, “한 건의 안전사고 없이 대회를 치를 수 있도록 협조해준 참가자들과 군민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장흥=김도영기자

이번 월드컵·WBC 아무리 잘해도 병역 특혜 못 받는다?

축구·야구팬들이 기다리는 국가대표전인 카타르 월드컵과 2023 월드컵예선(월드컵(WBC)이 다가오고 있다. 하지만 이번 대회에서 한국이 아무리 좋은 성적을 거둬도 병역 특혜는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카타르 월드컵은 오는 11월20일부터 12월 18일까지 본선 진출국 32개국에 참가한 가운데 열린다. 파울루 벤투 감독이 이끄는 한국 대표팀은 16강 진출을 노리고 있다. WBC는 내년 3월8일부터 21일까지 미국과 일본, 대만에서 20개국에 참가한 가운데 개최된다. KT 이강철 감독이 이끄는 대표팀은 2009년 준우승 이후 최고 성적을 노린다. 국내 최고 인기 스포츠들의 국가 대표전인 만큼 국민적 성원과 함께 선수 동기 부여를 위한 ‘당근’이 제시될 전망이다. 다만 그 혜택에 병역 특혜는 없을 전망이다. 병역 특혜란 체육요원 편입을 뜻한다. 체육요원으로 편입되면 기초 군사 훈련 후 선수 생활을 계속하면서 34개월 동안 544시간 봉사활동을 채우면 된다. 월드컵과 WBC 모두 병역 특혜 대상에 포함됐던 적이 있다. 2002년 월드컵 개막을 앞두고 정몽준 대한 축구협회장을 비롯한 국회의원 146명이 이한동 국무총리에게 “16강 이상 진출할 경우 축구 대표 선수들에게 병역 혜택을 달라”고 건의했지만 정부는 난색을 표했다. 그러다 사상 첫 16강 진출을 확정된 예선 마지막 경기 후 주장 홍명보가 대표팀 라커룸을 찾은 당시 김대중 대통령에게 “선수들 병역 문제를 대통령님께서 특별히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고 건의해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다. 이에 정부는 3일 만에 ‘월드컵축구대회에서 16위 이상의 성적을 거둔 사람’에게 병역 특혜 혜택을 부여하는 것으로 병역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카타르 월드컵 11월, WBC 내년 3월 개최
체육요원 편입 등 병역 특혜 없을 전망
2007년 말 병역 특혜 대상자 제외 조치
병역 자원 축소 이유...BTS도 특혜 못 받아

이에 따라 월드컵의 경우 2002년 한일 월드컵 때와 2006년 독일 월드컵 때는 16위 이상 이상할 경우 체육요원으로 편입될 수 있었다. 한일 월드컵 때는 4강에 올라 송중국, 이천수, 설기현, 이영표, 안정환, 박지성, 김남일 등이 혜택을 봤다. 독일 월드컵 때는 16강에 오르지 못해 대상자가 없었다.

이 같은 선례에 따라 야구 월드컵으로 불린 WBC에도 병역 특혜가 적용됐다. 2006년 제1회 WBC에서 대표팀이 4강에 오르자 이들에게 병역 특혜를 줘야 한다는 여론이 커졌다. 이에 정부는 또 같은 해 9월 병역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소급 적용해 최희섭과 김선우, 봉중근 등 해외파 3명과 오승환, 배영수, 전병두, 정성훈, 정재훈, 이진영, 김태균, 이범호 등 국내파 8명 등 11명에게 병역 혜택을 부여했다.

이후 “지나치게 병역 혜택을 남발한다”는 비판 여론과 다른 비인기 종목과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자 정부는 2007년 말 병역법 시행령을 개정해 월드컵 16강과 WBC 4강을 병역 혜택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후에도 축구와 야구에 병역 혜택을 주자는 의견은 제시됐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009년 야구 대표팀이 제2회 WBC에서 준우승하자 야구계와 정치권을 중심으로 “병역 혜택을 주자”는 요구가 있었지만 국방부는 이를 일축했다. 2010년 남아공 월드컵을 앞두고 허정무 축구대표팀 감독이 병역 혜택 부활을 건의했지만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번 월드컵과 WBC에서 대표팀이 예상을 뛰어넘는 성적을 거둔다고 해도 병역 혜택을 받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 정부가 병역 특혜 확대를 극구 반대하고 있어서다. 최근 방탄소년단(BTS)에게 병역 혜택(예수요원 편입)을 주자는 요구가 여론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지만 국방부와 법무청은 출생률 하락으로 병역 자원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병역 특혜를 추가할 수 없다고 거부하고 있다. 전 세계적인 인기를 구가하는 BTS에게도 병역 특혜가 주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축구·야구 선수들이 특혜를 받을 가능성은 희박하다. 뉴스

권순우·정현·조세혁 광주 열전...챌린저투어테니스 출전

10월 2일~9일 진월국제테니스장

한국 테니스를 이끌어가고 있는 권순우·정현 등의 실력을 볼 수 있는 무대가 광주에서 펼쳐진다. 광주테니스협회는 다음달 2일부터 9일까지 8일동안 진월국제테니스장에서 ‘2022광주오픈 국제남자 챌린저 투어 테니스대회’가 펼쳐진다고 25일 밝혔다. 세계 30개국 200여 명의 선수단이 참가해 기량을 겨루는 이번 대회는 단식 예선 24드루와 본선 32드루, 복식은 본선 16드루가 진행된단다. 총상금은 5만 달러 규모이며 단식 우승자에게는 80점의 랭킹 포인트와 7200달러의 상금이 주어진다. 또 이번 대회는 월드 투어대회로 진급하기 위한 테니스 유망주들의 필수 등용문이다. 국내에서는 한국 남자 테니스의 간판 권순



우(25·당진시청)와 남지성(29·세종시청), 정현(26·IMG), 조세혁(14·남원거점스포츠클럽) 등 출전한다. 권순우는 세계랭킹 74위에 머물고 있지만 이번 대회 강력한 우승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지난 2021년 2월 비엘라 챌린저 2차 대회와 9월 아스타나 오픈 챌린저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한 바 있다. 또 최근 스페인 발렌시아에서 열린 2022 데

이비스컵 파이널스에서 세계적인 강호를 상대로 탄탄한 실력을 선보였다. 세계 랭킹 544위인 남지성은 지난 2015년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테니스 남자 단체전 금메달과 남자복식 은메달을 획득했으며 지난 2018년 광주오픈에 참가, 단식 준우승과 복식 우승을 차지했다. 올해 8월에는 방콕오픈 챌린저에서 복식 준우승을 차지했다. 한국 선수 최초로 2018년 호주오픈 단식 4

강에 진출한 정현은 허리 부상으로 지난 2020년 9월 프랑스오픈 이후 2년 가까이 코트에 서지 못했다. 2018년 4월 세계 19위까지 올라 한국 선수 역대 최고 랭킹을 기록한 정현은 최근 2년간 경기를 뛰지 않아 랭킹이 없다. 정현은 이번 대회를 통해 재기를 노린다.

“한국의 테니스 셋발” 조세혁은 이번 대회를 통해 성인 무대에 도전한다. 조세혁은 지난 7월 영국 워블턴의 올 잉글랜드 클럽에서 열린 워블턴 U-14 대회 남자 단식 결승에서 커렐 오브리엘 은고노에(미국)를 꺾고 우승컵을 들었다. 광주시테니스협회는 아마추어 대회도 동시에 진행한다. 다음달 8일 여성동호인대회, 9일 MZ세대를 위한 테린이대회를 잇따라 펼친다. 김성남 광주시테니스협회장은 “한국 테니스의 기대주였던 정현도 국내 ATP 챌린저 대회 우승을 통해 랭킹 포인트를 획득하며 투어 선수로서의 발판을 마련했다”며 “세계 각국의 유망주를 경기장에서 지켜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고 밝혔다. 서선욱기자

여주시청 유도팀, 제103회 전국체전 ‘금메달’ 영예

남자일반부 -81kg급 이광희 선수 결승에서 한관승

여주시청 유도팀 이광희 선수가 제103회 전국체육대회에서 금메달을 획득했다. 시에 따르면 22일 울산 문수체육관에서 열린 유도 남자일반부 -81kg급 결승에서 이광희 선수가 한관승을 거두고 금메달을 획득했다. 제103회 전국체육대회는 10월 7일부터 13

일까지 울산광역시 일원에서 개최되나, 유도 종목은 세계선수권대회와 일정이 겹쳐 21일부터 경기를 치르고 있다. 코로나19로 3년 만에 개최되는 이번 전국체전에는 여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에서 4개팀(육상, 유도, 요트, 볼링) 32명의 선수와 지도자

가 참가하게 된다. 특히 대회 일정보다 먼저 치러진 유도 종목에서 금빛 승전보를 전함에 따라 이번 대회 여주시청 선수단의 선전이 기대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목표를 향해 열심히 달려온 선수와 지도자의 노력 덕분에 이런 좋은 결과가 나온 것 같다”며 “다음 달 7일 본격적으로 열리는 전국체전에서 모든 종목, 모든 선수가 좋은 성적을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수=김현근기자

